주요 FTA 성과 및 향후계획

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1. 우리나라 FTA 정책

2. 주요 FTA 성과

3. 향후 FTA 추진계획



1 우리나라 FTA 정책

■ 개방형 통상국가로,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

- 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 ② 국내 소비자 후생 증가
  ③ 경쟁을 통한 기업경쟁력 촉진 ④ 국제 규범 수준에 맞추어 국내 제도 개선

■ FTA 선도국으로서 신시장 FTA네트워크 지속 확대하며, 글로벌 자유화 규범 확산·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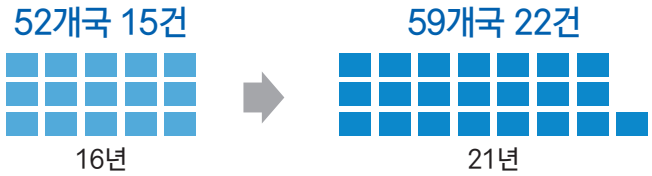
한국의 FTA 추진방향

2000년대	2010년대	현 정 부
동시다발적 FTA	거대경제권 FTA	메가FTA·신시장 FTA
칠레('04) 싱·EFTA('06) ASEAN('07)	EU('11) 미국('12) 중국('15)	RCEP·인니('21 비준) 캄보디아('21 서명) 필리핀('21 타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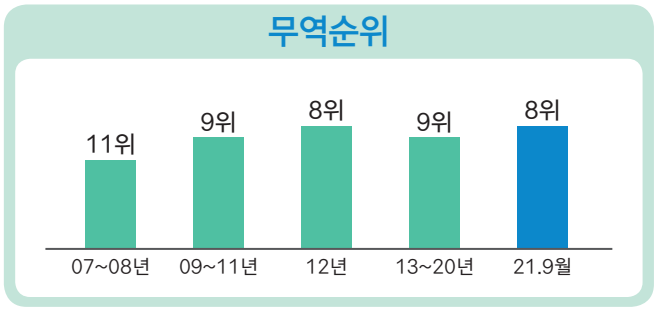
2 주요 FTA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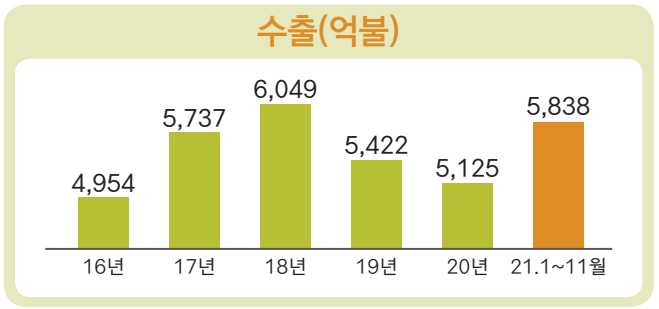
■ 세계 GDP 85% FTA 네트워크 확보 ('16년 79%)

FTA 타결 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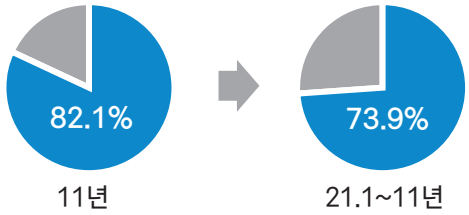
■ 공급망 다변화, 불확실성 조기 완화 ⇨ 세계 무역 8강, 최단기간 무역 1조불, 수출 역대 최고치





■ 주력품목 + 바이오, 이차전지, 농수산식품, 콘텐츠 수출증가 ⇨ 수출저변 확충

13대 주력 제조품목의 수출집중도



산업통상자원부

2 주요 FTA 성과

① 신시장 FTA확대

신남방 · 신북방 · 중남미 · 중동으로의 FTA 네트워크 진출

- **(신남방)** 세계 최대 FTA인 RCEP 비준('21.12), 한-인니 CEPA 비준('21.6), 한-캄 FTA 서명('21.10), 한-필 FTA 타결('21.10) 등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

인도네시아	❶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그간 중단되었던 협상을 재개 → 9개월만 타결 ❷ 아세안 거대시장 진출 확대 여건 마련 ❸ 우리 주요 기업의 신남방 거점투자와 함께 FTA를 통한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대
캄보디아	❶ '20.7월 협상개시 후 '21.2월 7개월만에 협상타결 ❷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협상을 화상으로 진행, 팬데믹 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한 협력도 합의 ❸ 주력품목(자동차, 섬유)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및 전자상거래 등 협력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신남방 진출국가 다변화 기여
필리핀	❶ RCEP 대비 승용차, 화물차, 자동차부품 등 시장개방 추가 확보하며, 경쟁국 대비 우호적 여건 확보 ❷ 기후변화협력, 백신협력 등 신통상이슈 공동대응 기반 마련

2 주요 FTA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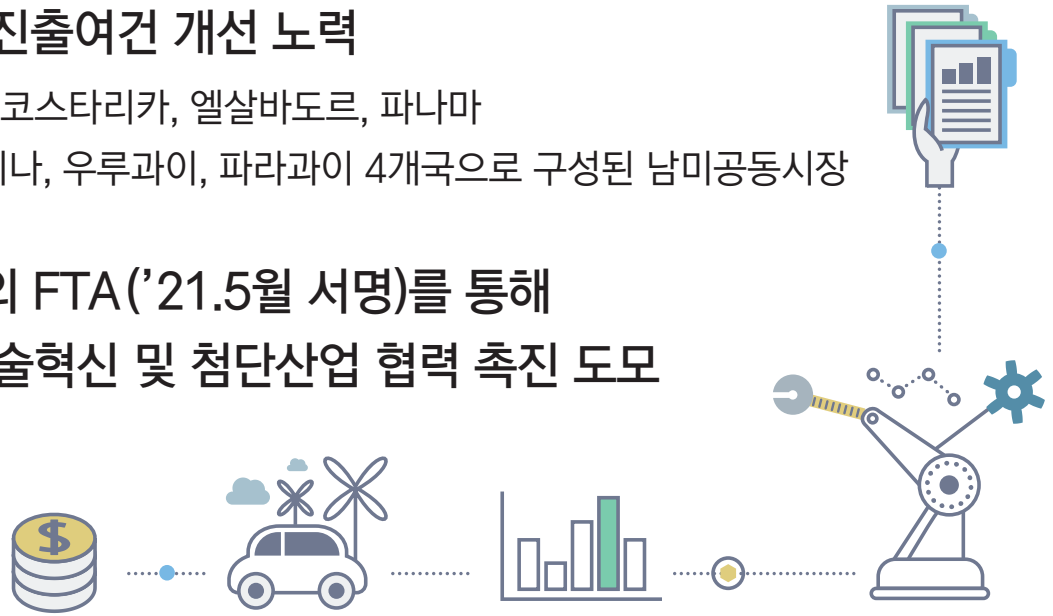
- **(신북방)** 한-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('18.3 개시), 한-러 서비스·투자 협상('19.6), 한-우즈벡 무역협정 협상('21.4) 등 신북방 진출 교두보 모색

- **(중남미)** 중미 5개국과 FTA 전체 발효('21.3), 메르코수르 무역협정(TA) 협상개시('18.5) 등 중남미 진출여건 개선 노력

  * 중미 5개국 :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파나마

  ** MERCOSUR :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

- **(중동)** 기술강국 이스라엘과의 FTA('21.5월 서명)를 통해 교역·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혁신 및 첨단산업 협력 촉진 도모



2 주요 FTA 성과

② 현안대응

한-미 FTA 개정('18.9월 타결, '19.1월 개정발효) 및
한-영 FTA('19.8월 타결, '21.1월 발효)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교역환경 조성

③ 디지털규범 대응

한-싱 DPA 협상('20.7 개시), 뉴·싱·칠 DEPA 가입추진('21.9 가입신청) 등을 통해 아·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

* DPA : 디지털동반자협정(Digital Partnership Agreement)
** DEPA :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, DEPA) : 싱·뉴·칠 3개국이 디지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[협상개시('19.5) → 서명('20.6) → 발효('21.1)]

④ 보완대책

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지속 추진

3 향후 FTA 추진계획

최근 통상환경

- 코로나19 등 공급망 리스크 대두 ⇨ 공급망 다변화 필요
- 디지털 전환 가속화 ⇨ 디지털 통상 규범 선제적 대응 필요
- WTO 다자체제의 약화 및 RVC 재편 ⇨ 메가 FTA 적극 대응

1. (新시장 확대) 향후 신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다변화 지속 추진

권 역 별	FTA 확보(GDP)	추가 FTA 검토 대상국
아시아	82% (13개국*)	신남방(추가개방), 신북방
미 주	88% (10개국)	멕시코 / PA, Mercosur
유 럽	99% (33개국)	-
오세아니아	99% (2개국)	-
중 동	14% (1개국**)	걸프협력이사회(GCC)
아프리카	0%	이집트 등

* RCEP(일본) 포함 ** 이스라엘 포함

3 향후 FTA 추진계획

■ 신남방 FTA 네트워크 마무리

- ’22년초 한-인니 CEPA 및 RCEP의 발효·이행,
  한-필리핀 및 한-캄보디아 FTA 서명/비준 등 발효준비 가속화

■ 한-멕 FTA 협상재개 및 태평양동맹(PA) 가입협상 개시

* Pacific Alliance : ’12년 멕시코·칠레·페루·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연합

- 멕시코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, 양국간 교역·투자를 확대하고,
  경제·통상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FTA 필요

  * 멕시코는 중남미 우리나라 1위 교역 상대국으로, 4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



3 향후 FTA 추진계획

■ 한-메르코수르 TA 협상 가속화

- 우리측 관심품목 시장개방 등 남미 新시장 선제적 확보 및 진출 확대 교두보 마련

44.6억불	53.4억불	2.95억명 (남미 전체 인구의 70%)	3.4조불 (남미 전체 GDP의 68%)
對메르코수르 수출	對메르코수르 수입	인구	GDP

■ 한-GCC FTA 협상재개

- 주요 교역·투자대상이며,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동지역과 교역·투자 확대 및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FTA 추진

90억불	377억불	166억불	5,885만명 (14세 이하 인구비중: 26.1%)	2.4만불
對GCC 수출	對GCC 수입	對GCC 누적투자('20년)	인구	1인당 평균 GDP

3 · 향후 FTA 추진계획

2. (메가 FTA 대응)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 적극 검토

- **(대내)**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규범 관련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旣마련, 후속조치 이행

  * 4대 규범 : 디지털 통상, 수산보조금, 위생검역, 국영기업

- **(대외)** CPTPP 회원국 등과의 대외 비공식 협의 지속

⇨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, 비공식협의 결과, 국내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여부 결정



3. (디지털협정)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디지털 분야 협정 체결 추진·확대

① 한-싱 DPA

-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규범 정립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아세안 디지털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

  * '20.6월 협상 개시 이후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로, DPA와 함께 분야별 협력 MOU 체결 준비 중

② 뉴·싱·칠 DEPA 가입

- 아태지역의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기가입 추진

  * 10.5일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 선언, '22.1월부터 가입협상 본격 추진 예정